

200자 안내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정기평 지음

88, 89년 두해에 일어난 교사운동의 핵심적인 쟁점을 객관적으로 평가·고찰한 책. 전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전교협의 교육법개정 투쟁과 그 전개과정, 전교조투쟁의 평가, 조직·연대문제를 주내용으로 다루고, 나아가 90년대의 교육운동을 전망하고 있다.

형성사 / A5신 / 314면 / 4200원

젊은 여성을 위한 철학에세이

강영계 지음

건국대 철학과 교수인 저자가 젊은 여성들을 위해 쓴 철학에세이. 이 책은 젊은 여성들이 자각해야 할 性역할의 남녀평등, 인격에 대한 의식,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각성 등을 전10장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여성에게 철학적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다.

해냄출판사 / A5신 / 296면 / 3500원

깊고 긴 겨울

손영목 지음

197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관남」이 당선돼 문단에 나온 작가의 장편소설. 우리의 정통적인 인식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남녀끼리의 애정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사랑의 정점을 섹스가 아닌 것에서 찾는, 그러면서도 보다 절실한 순수 그 자체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한빛 / A5신 / 326면 / 3700원

미국지방자치법

T. J. 쿠퍼 지음 / 박상호 옮김

미국에서 州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독특한 권력체계인 '주헌법'의 실상을 해설한 번역서. 전10장으로 나눠 해석의 규칙·집행부·입법부·사법부·세입과 세제 등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주별 헌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우리나라의 법률체제 정착에 참고가 될 듯하다.

嶺南出版社 / A5신 / 198면 / 4000원

中國人 유학생의 유서는 무엇을 호소했나?

신화사·인민일보 기자단 지음 / 장진한 엮음

중국 일선기자들이 오늘날 중국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및 주택난·인플레이·암거래 등의 실상을 생생히 밝힌 책. 1장은 조국을 '탈출'하려는 중국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2장은 암거래상의 정채와 부패관리들의 흑막을 파헤치고 있다. 그의 심각한 주택난, 서민생활의 양상, '拔擢인사'와 뇌물이 횡행하는 중국사회를 르포하고 있다.

청림출판사 / A5신 / 224면 / 3000원

하늘님, 나라를 처음 세우시고

최재욱 지음

서울대 교수인 저자가 전래신화를 알기 쉽게, 민족적 자긍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쓴 책. 단군에서 근세조선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제주도 건국신화까지 25편의 다양한 신화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반문하며 그런 우리의 실체를 반영하는 신화가 "거울이며, 거름이며 슬기보따리며,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고려원 / A5신 / 310면 / 3800원

조숙한 연애

장현량 지음 / 강청일 옮김

입시압박과 성적 갈등으로 자살한 중국 여고생의 얘기를 쓴 실화소설.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인 자각과 심리를 솔직하게 묘사한 이 책은 한편으로 중국사회의 낙후성과 암흑을 폭로하기도 한다. 고3 남학생의 연애사건이 대사건으로 변하면서 자살이라는 종말을 맞이까지의 과정을 다뤄, 중국에서는 '조숙한 연애'가 결코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웅 / A5신 / 288면 / 3300원

은의자

C.S. 루이스 지음 / 전경자 옮김

마법과 요술의 나라 나르니아를 여행하는 연작동화 '나르니아 연대기' 중 여섯번째 이야기. 주문을 외어 나르니아 왕국에 가게 된 결과 유스타스가 마녀의 흉계에 빠진 릴리안 왕자를 찾아나서면서 겪는 모험담을 그렸다. 어린이를 등장시킨 이야기지만,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큰 교훈을 준다.

성바오로출판사 / A5 / 208면 / 3800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쿠시넨 지음 / 편집부 옮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사회의 성립배경을 고찰한 이론서. 사회주의 건설이론과 그들 국가들의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세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격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주의국가들의 과거 70년 역사를 구명하고 있다. '사회과학기초' 시리즈(전7권)의 여섯째권.

동녘 / A5신 / 264면 / 3800원

통속정치경제학 1

중국남경대학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조 지음 / 한국선 외 옮김

중국 남경대학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수연구실이 공동집필한 연구서. 정치·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생성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흐름과 그 변화를 정치경제학의 기본원리와 함께 실제와 연관시켜 기술했고,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했다.

청년사 / A5신 / 338면 / 4200원

국가보안법연구 1

박원순 지음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 저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느끼고 겪었던 일들을 '국가보안법 변천사'적으로 밝힌 책. 1부는 시사잡지에 발표됐던 글로서 국가보안법을 개괄적으로 논의했다. 2부는 국가보안법의 제정·개정·변천과정을 배경과 경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역사비평사 / A5신 / 260면 / 3800원

하나의 벽을 넘어서

권인숙 지음

'부천시 성고문 사건'의 주인공인 저자의 수기. 이 책은 느닷없는 연행·취조과정, 학생운동대의 회상, 성고문 폭로 결심과 수감·출소과정을 밝혔다. 자신의 이름이 주는 압박으로 인해 갈등하던 한 시기의 모습과 비로소 자신이 몸담을 사회적 실천의 장을 찾으면서 새 삶을 다짐하는 근황까지를 담고 있다.

거름 / A5신 / 304면 / 3800원

언덕위의 집

三浦綾子 지음 / 윤현 옮김

「빙점」으로 잘 알려진 저자가 교육문제를 주제로 다룬 장편소설. 사생아로 태어난 주인공 소년이 아버지의 불륜에 극도의 미움과 환멸을 느끼고 방황하면서도 이복동생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고뇌로부터 벗어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연재됐던 것으로 원제는 「積木の箱」.

준 / A5신 / 332면 / 3200원

홍콩·마카오

계명여행사 편집부 엮음

홍콩·마카오 여행에 필수적인 '실용정보'와 구체적인 관광명소 소개, 그리고 지리적

안내까지 포괄한 여행안내서. 여행일정, 입국수속부터 숙박, 쇼핑까지 자세히 소개했으며, 여행중에 요긴하게 쓰일 만한 현지 대화를 추려 영어와 함께 현지어 발음으로 표기했다. '대장정 해외여행 안내서' 시리즈의 네번째 책.

대장정 / B5변형 / 162면 / 4000원

PC문화론 I

박순백 지음

「소프트월드」지에 발표했던 저자의 '컴퓨터 칼럼'을 한데 모은 책. 개인용컴퓨터의 5가지 분야로 일컬어지는 워드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서, 그래픽, 통신에 관한 것은 물론, 컴퓨터하드웨어 및 근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컴퓨터바이러스에 관한 글들도 폭넓게 수록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풍부하다.

희성출판사 / A5신 / 236면 / 4500원

타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김청람 지음

동남아 4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안내서. 단체관광보다는 혼자나 몇명이 여행했을 때 알맞도록 꾸며져 있다. 출입국 절차부터 현지의 관광명소·숙박·쇼핑안내까지 소개하며, 특히 지명표기가 현지말로 되어 있어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문화정보사 / A5신 / 142면 / 3500원

좋은 환경이 똑똑한 아이를 만든다

김재은 지음

태아기에서 여섯, 일곱살까지의 교육, 환경, 경험의 중요성을 설명한 책. 이 시기 아기의 건강, 체질, 지능 등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바탕을 형성한다. 태아기교육의 의미를 비롯하여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랑, 유치원 교육의 의미를 예화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해설했다.

샘터 / A5 / 248면 / 2800원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워요

벨 카우프만 지음 / 안정효 옮김

햇병아리 여교사가 교사생활 첫해에 겪는 경험과 한 남학생의 반항을 그린 교육소설로 미국 고등학생들의 재치있고 자유분방한 생활이 잘 나타나 있다. 흑백인종문제로 고민하는 아이, 매독에 걸린 여학생,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울 수 없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해야 하는 학생들의 고뇌를 함께 나누는 교사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까치 / A5신 / 262면 / 3000원

우정을 위하여

하인리히 겐코프 지음 / 오순희 옮김

마르크스·엥겔스의 저서와 편지 속에서 우정에 관한 글만 모아 엮은 책. 두사람의 우정은 물질적인 도움, 쌍방의 가족에 대한 상호관심 외에도 「신성가족」을 비롯한 공동작업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인간 감정의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실천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한마당 / A5변형 / 214면 / 2300원

개달음의 길

거해스님 엮음

불교 원시경전 중의 하나인 위빠사나 수행법을 밝힌 책. 위빠사나는 '자신의 참다운 성품을 수행을 통해 직접 본다'는 뜻으로, 동남아 불교권에서 수행법의 기본골격이다. 저자는 여러해 동안 태국·버마 등지에서 수행경험을 토대로 98개의 주제를 놓고 위빠사나의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지도하고 있다.

山房 / A5신 / 240면 / 3500원

전환기의 한국정치

趙淳昇華甲紀念論文集 편찬위원회 엮음

정치학자 조순승교수의 회갑을 기념한 여러 학자들의 논문집. 여기 실린 논문들은 현대한국의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그동안 학계와 논단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쟁점으로 엮여졌다. 비교정치에 관한 것, 국제정치에 관한 것, 정치사상에 대한 고찰, 통일의 과제에 따른 정책을 살핀 논문들이다.

박영사 / B5 / 627면 / 2500원

레이스 뜨는 여자

빠스칼 레네 지음 / 이재형 옮김

1975년 콩푸르상 수상작인 이 소설은 젊은 남녀가 헌신과 희생을 다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계층차이로 파탄에 이르는 줄거리이다. 견습미용사인 여주인공은 귀족 출신의 대학생 청년과 이별한 뒤 정신병환자가 되는데, 작가는 여주인을 둘러싼 여러 유형의 여성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예하 / A5 / 148면 / 2000원

달나라의 지도를 그리자

하이타니 겐지로 지음 / 방미향 옮김

일본의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인 작가가 국민학교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쓴 28편의 장편소설을 엮은 책.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교에서 펼치는 갖가지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정신박약아문제, 파업, 단식 등 사회문제로 시야를 확대해 이야기를 전개했다. 일본의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참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작은책 / A5신 / 294면 / 3300원

반년간지

오늘의 소설(1989 하반기)

[좌담] 80년대를 움직인 소설(권오룡·이남호·임현영·홍정선)
[중편소설] 최일남 / 정찬 / 김하기
[단편소설] 이청준 / 김영현 / 최성각 / 김인숙 / 이순원 / 최윤 / 서해성
[하반기 소설 총평] 선별 혹은 과장의 기쁨(김태현)

현암사 / A5신 / 424면 / 4000원

오늘의 시(1989 하반기)

[좌담] 80년대 한국시의 전개(김명인·김우창·김철·정과리)
[시] 강형철 / 고은 / 고재중 / 나해철 / 도중환 / 박몽우 / 안도현 / 이기철 외
[평론 I / 하반기 문제詩 해설] 오늘의 시의 존재양식(韓基)

[평론 II / 주요시집해설] ▲고재중시집「새벽들」(윤지관) ▲기형도시집「입 속의 검은 잎」(성민엽) / 장경린시집「누가 두꺼비집을 내려놨나」(남진우)

현암사 / A5신 / 280면 / 3500원

월간지

문화예술

[특집 / 90년대의 전망] ▲시야의 확대와 예술성 탐구(유민영) ▲정신의 열매가 될 90년대 문학기(김재홍) ▲전통문화예술의 활발한 대중화작업(최종민) ▲문예진흥위한 사회적 여건조성(임희섭) ▲미술계의 각성과 90년대의 힘찬 도약(김인환)

[예술기행] ▲민중극의 메카, 아비뇽(김화영) ▲예술인의 낙원 캐나다 밴프센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B5 / 212면 / 3000원



화제의 책

학자와 부총리

고승철 지음



경제위기가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작금에 한국경제의 '조타수'인 趙淳부총리에 관한 평전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유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신동이라는 소리

를 들으며 자랐고, 30세에 미국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는 晩學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학뿐만 아니라 한문학·역사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조순 부총리의 드라마틱한 인생역정이 그려져 있다.

현재 경향신문 경제부기자인 저자는 "한 경제학자가 품었던 이상이 현실과 부딪쳐 어떻게 좌절되고 변형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런 관점에서 "조순 부총리의 과거와 현재의 위상을 조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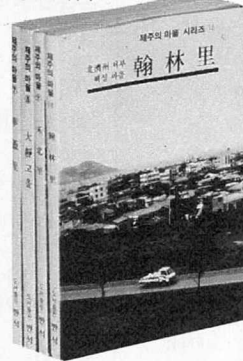
7년간의 육사교관 생활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전·현직 대통령을 가르친 인연으로 내각에 입각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조순 부총리의 개인사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힘입어 소상히 밝혀져 있다.

나남 / A5신 / 290면 / 4,000원

화제의 책

제주의 마을

오성찬 엮음



민요를 비롯하여 사라져가는 제주의 온갖 풍물을 담고 있는 「제주의 마을」시리즈 2차분으로 「봉개리」 「대정고을」 「화북리」 「한림리」 등 4권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제주도 출신 소설가 오성찬씨가 스스로 기획, 현지답사·문헌조사·집필은 물론 출판까지 도맡아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85년 10월경부터 4년 남짓 제주도의 자연부락을 현장답사하면서 이들 마을에 숨쉬고 있는 민초의 삶을 복원시키고 있는 이 책은, 먼저 각 마을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소와 옛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화보를 꾸미고 있다. 그 다음 마을의 자연환경·사회적 배경·마을의 형성과 변천·인구의 이동이 풍속사와 더불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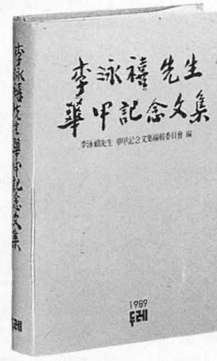
제주도의 흙과 바람, 정겨운 사투리 하나에도 깊은 애정을 느끼는 엮음이의 열정이 제주의 참 모습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어떤 地理誌에서도 찾아보지 못할 향토문화의 귀중한 자료집이다.

반석 / B6 / 각 200면내외 / 각 2000원

논총

李泳禧先生 華甲紀念文集

이영희선생 회갑기념문집편집위원회 엮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특유의 입담으로 날카롭게 지적해온 이영희교수(한양대 신방과·「한겨레신문」논설고문)의 화갑을 기념하는 논문집이 간행되었다.

「한국사·한국사회」 「韓美관계·국제관계」 「사회과학·문학·예술·교육·여성」 「言論」 등의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이교수가 평소 발빠르게 제기해온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연구한 관련학자들의 논문들로 엮여졌다.

이돈명(조선대학교 총장)씨는 賀序에서 "이선생이야말로 전환기의 시대,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 헤쳐나가는 지식인의 표상이요 그 좌표로 비치게 했다"며 「만년청년」 이영희교수의 회갑을 기렸다.

특히, 이 책의 끝부분에는 애독자와의 대담이 실려 있어 이교수 개인의 삶과 사상적 편력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문집간행위원회는 지난 12월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집헌정식을 가진 바 있다.

두레 / A5신 / 614면 / 비매품